

한국교육시설학회 제3회 학생공모전 소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현과 교육시설 공모전
 Construction of New Program and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전 유 창 / 정회원, 이주대 건축학부 교수
 Jeon, You-Chang / Professor, Ajou University
 ycjeon@ajou.ac.kr

현대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프로그램의 상호 관계는 사회가 원하는 한 시점으로만 형성될 수 없다. 현대건축의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단일 기능이 아닌 복합화된 유동적 관계해석의 장(Field)으로 변해가고 있다.

건축가는 개인의 유동적인 활동과 기능과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의 프로그램적 해석 과정을 통해 공간의 구성 및 형태에 적용하고 이를 물질화하는 과정을 통해 건축의 실체는 구현된다. 즉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는 건축가의 주관적인 개념에 따라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가는 주어진 정보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사고를 시각화하고 구체적인 공간의 관계와 형태적 단서를 유추해 낸다. 따라서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건축가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을 가지는 건물로서 형상화 된다.

사회적 체계와 구조의 변형에 따른 대응관계는 프로그램이 가지는 복합화 과정을 통해 발현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원고는 2012 교육시설학회 공모전의 주제인 「변화하는 학교」에 대해 프로그램의 해석과 이에 상응하는 건축적 구현 방식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살펴보려한다.

건축에서 프로그램(program)은 pro의 어원인 이전(before)의 개념과 graphein의 기록하다(to write)의 어원이 결합한 단어로 어원적 의미는 ‘미리 적어 놓은것’이고, 사전적 정의는 ‘따라야 할 순서를 정해 놓은 개요’ 또는 어떤 목적을 향한 행위가 취해야 할 계획 또는 체계로서 건축 설계 과정의 주어진 기능 및 요구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 개개의 시설마다 요구되는 다양한 행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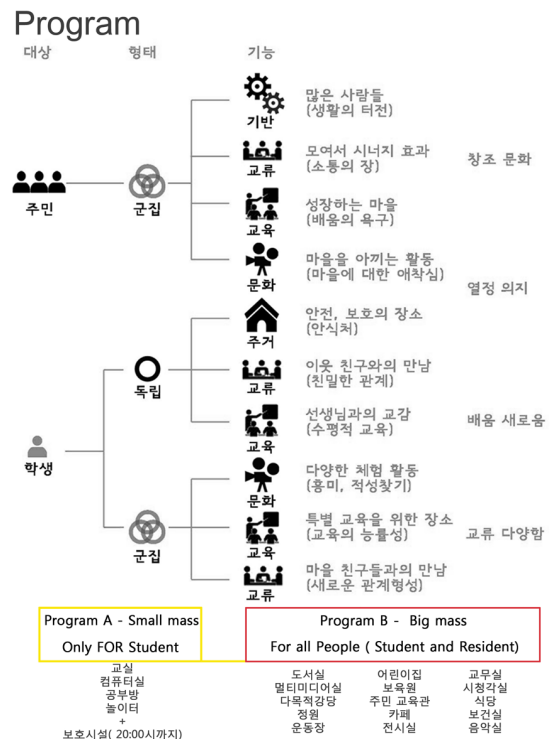


그림 1. 「104마을 고살길 초등학교 이야기」 프로그램

은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에 의해 정의되어지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시설내의 사용자의 요구조건들을 선행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항목으로 정의, 또는 분류해 놓은 설계 이전의 선행되어지는 자료일 것이다. 이를 일차원적으로 이해한다면 프로그램은 ‘기능’과 ‘용도’에 단순한 배분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건축의 시대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때 그 시대가 지니는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관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념은 변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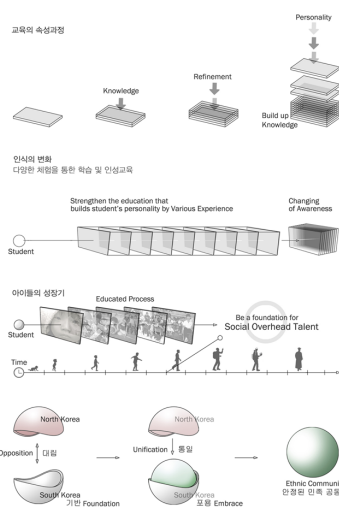


그림 2. 「UEF」 개념도

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은 중요하다.

교육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건축에 있어서의 교과과정을 포함한 내부적 논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교육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프로그램적인 관점에서 학교 건축의 계획은 학교의 입지적 조건, 학교의 구성, 학교의 규모, 등에 대한 일차적인 기획의 조건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교과과정과 학습 체계의 변화에 대한 가정과 전체를 통해 새로운 학교의 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방향을 살피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설계에 있어 교과과정의 편제 즉 교과과정의 편성 및 시간 배당에 대한 이해와 적용 또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일 것이다. 학교는 학생자신이 생활하는 장소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 또는 지도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 각자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장소로서 학생의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부분이 교육의 장으로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급식시설, 복도, 계단등도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주요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은 일반교실부분, 특별교실부분, 관리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일반교실부분은 학급활동을 위한 기본단위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교실마다 집약된 배치가 필요하다. 교육, 학습 및 생활의 장소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교과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별교실과 교과교실 부분의 자연교실, 가정과 실습교

실, 예술교실, 기술교실, 작업교실 등을 포함한 일반교실 이외의 학습 공간에 대한 구성으로 일반교실과의 관계,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공통 학습실 부분의 도서실, 시청각 교육실 등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과 관리부분의 직원사무실, 교장실, 양호실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대한 처리와 함께 다목적 홀과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도 학교시설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교육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학교」로서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들은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규율성의 정확한 이해를 기본으로 프로그램의 관계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자율성 사이의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

위의 관점에서 보면 대상 수상작인 안창원(한밭대)의 「마을풍경을 담은 학교」의 경우 마을이라는 공동체적 개념과 지역적 특성을 장소성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학교시설이 프로그램적 성격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감천동에 위치한 학교대지는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형적 특성과 마을의 주변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재해석을 기본으로 공공적 관계형성을 위해 식당, 도서관, 아트샵, 카페 등의 시설을 공용시설로 활용한 발상이 눈에 띄었다. 경사지 특유의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직관계를 길이라는 건축 프로그램적인 장치를 고안하여 길의 성격에 따른 진입, 경사지를 이용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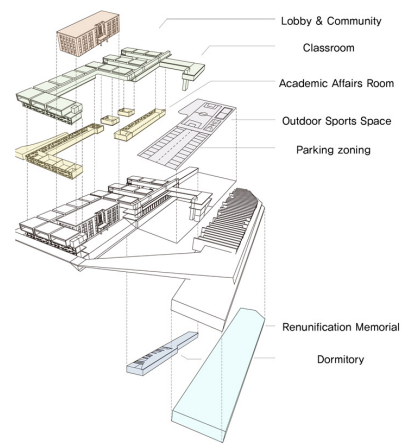


그림 3. 「UEF」 프로그램 구성도



그림 4. 「104마을 교실길 초등학교 이야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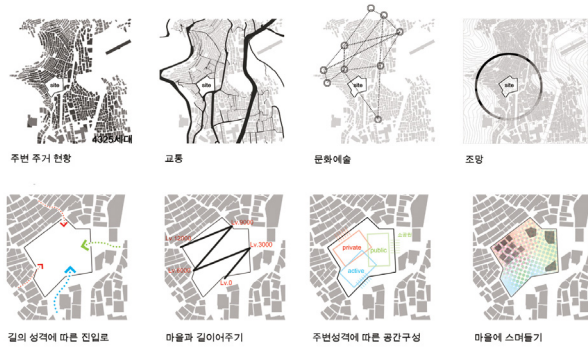


그림 5. 「마을풍경을 담은 학교」 분석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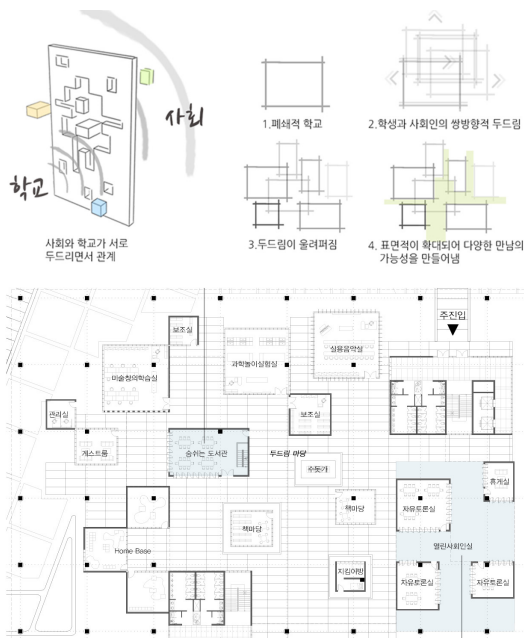


그림 6. 「DO:DREAM SCHOOL」 개념 다이어그램과 1층 평면도

부공간의 활용, 주변 프로그램과의 밀접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단 전체 프로그램에서 동선의 특성이 강조되어 복도 및 외부 공간 등이 과다하게 사용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최우수상인 민건호, 오영범, 김승일(세종대)의 「UEF」의 경우 미래의 통일과 연관된 이념적 대립을 해소하며 남과 북의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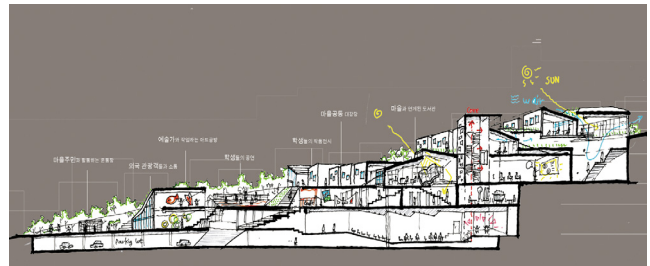


그림 7. 「마을풍경을 담은 학교」 단면도

교육시설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DMZ와 인접한 철원의 노동당사건물을 학교의 일부로 그 기념비성과 기능성을 재해석한 제안으로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해석이 뛰어나 보였다. 단 기존건물과 확장된 학교시설의 평면상의 구성 원리와 실들의 배치가 주제의 방향에 비해 다소 일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수상 수상자인 박민주, 박수현, 박다보미(공주대) 「DO:DREAM SCHOOL」은 현 한국 사회의 소셜네트워크 기술과 문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관계형성의 증폭제로서 학생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확장하는 개념을 두드림이란 소통적 어휘를 통해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9.9m x 9.9m의 모듈화된 구조적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사회와의 매개적인 성격의 외부공간을 주요한 계획요소로 제안하였다. 또한 학습공간을 체험적 공간으로 확장시켜내려는 구체적인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우수상인 이광현, 경동규, 임원재(광운대)의 「104마을 고샅길 초등학교 이야기」는 개발보다는 개선을 통한 학교의 모습을 구현하여 하였으며 중앙집중형의 기존학교에서 탈피하여 기능분화를 통한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 학교를 계획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사용자그룹을 세분화하여 그 대상과 관계형태, 그리고 기능에 따른 사용자의 세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분산 배치된 평면을 도출한 점은 설계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느슨한 프로그램의 결합을 통해 평면에 나타나는 외부공간은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주변의 낙후된 시설을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재건축하거나 버려진 공터를 어린이 놀이터로 재활용한 아이디어는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시도라 보여준다.

「NEXT HIGH PADAGOGY」으로 우수상을 받은 백선기(한밭대)의 작업은 PBL(Problem-Bsese Learnign)의 도입과 범죄예방설계(SDAC)를 중심으로 복도공간의 개방, 다양한 활동 공간, 열린 시야, 동선 충돌의 최소화를

구체적인 공간구성 기법을 해석, 적용한 단위공간의 확장을 통한 학교시설을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념 설정과 이의 건축공간으로의 유추적 해석이 프로그램과 공간과의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해석이 단위공간의 확장을 통해 교과교실의 구성과 배치의 개념까지 일관되게 확장되지 않은 점은 결과적으로 평면의 유형이 일반적인 학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한계점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상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공모전의 결과물을 프로그램의 해석과 제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미래의 사회적 요구조건에 부합하려는 참신한 시도들을 볼 수 있었다.

이의 제안들이 좀 더 건축적으로 완성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제안에 있어서 기본적인 학교 프로그램의 체계와 교육시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보인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해석과 구현은 이상과 현실의 적절한 균형감각안에서 가능할 것이다. 건축의 기본적인 역할이 사회적 요구조건의 해석과 이에 따른 건축공간의 대응 방식을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구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면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건축적 결과로서의 평면에 대한 세심한 구성과 표현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며 향후 다양한 관점의 학교시설에 대한 제안들을 통해 미래의 교육환경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Circulation &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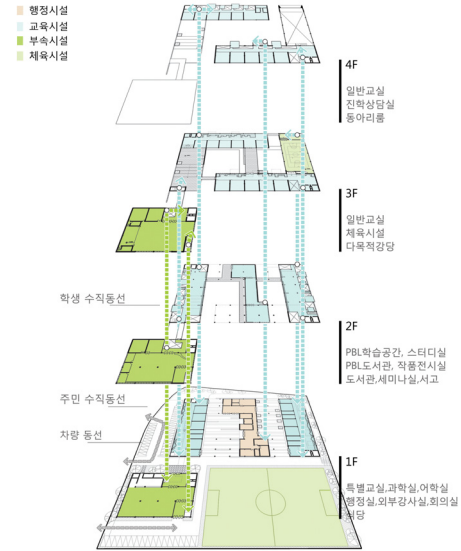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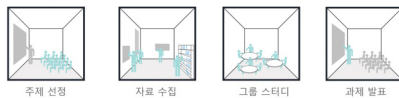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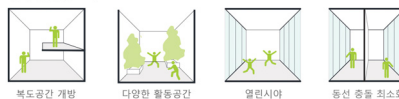
그림 8. 「NEXT HIGH PADAGOGY」 프로그램 구성과 동선 체계도

CONCEPT

1. PBL 수업 방식으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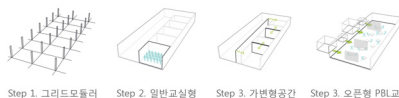


2. 변화예발설계(SD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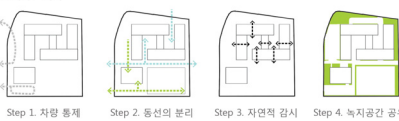


Space Process

1. 교실의 변화



2. 배치 스티디



Mass Study

Step 1. 대지의 분할



Step 2. 매스 삽입



Step 3. 학생 커뮤니티 공간



Step 4. 동선에 의한 분절



Step 5. 교실 등의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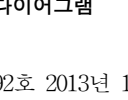


그림 7. 「NEXT HIGH PADAGOGY」 개념 다이어그램